

“부상 완쾌…주전경쟁 달라진 것 없다”

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(이하 맨유)에서 13경기 만에 출전하며 부활의 시동을 건 박지성(28)은 “오랜만에 뛰었다는 점에 만족한다”고 밝혔다.

박지성은 26일 오전(이하 한국시간) 열린 2009-2010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5차전 베식타스(터키)와 홈 경기(0-1 패)에서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후반 24분 마이클 오언과 교체될 때까지 69분을 뛰며 경기를 관전했다.

박지성은 맨유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것은 지난 9월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 선발로 나선 이후 13경기 만이었다. 점점 치열해지는 주전 경쟁에 대해서는 “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경기장에서 보여주면 된다”며 단답하게 말했다.

다음은 박지성과 일문일답.

- 두 달여 만에 복귀전을 치렀는데.

▲팀이 경기에서 패했다.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뛰었다는 점에 만족한다.

- 오늘 경기를 뛴 것은 이제 완벽하게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나.

▲부상이 완쾌됐고 몸이 괜찮아서 대표팀에 다녀왔다. 지금 현재는 전혀 문제없다.

- 이미 대회 16강 진출은 확정했지만 오늘 경기에서 팀은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이었는데.

▲이길 기회에서 골을 넣지 못했다. 하지만 어린 선수들이고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다. 아직 조 1위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끝까지 좋은 경기를 할 것이다.

- 지난 주말 에버턴과 경기에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엔트리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었나?

▲특별한 이유는 없다.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결정이었다.

- 회복 기간에 위기설도 있었는데.

▲경기에 나설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



25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(UEFA)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(가운데)이 공을 차지하기 위해 베식타스(터키)의 파비안 에른스트(왼쪽), 이브라힘 토라만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. /연합뉴스

‘산소탱크’ 박지성 13경기만에 선발 출전

“내가 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는게 최선”

었기 때문에 뛰지 못했을 뿐이다. 경기에서 나서려고 따로 훈련을 했고 시간이 길어졌다. 대표팀에 합류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.

- 쉬는 동안 안토니오 발렌시아, 가브리

엘 오베르탕이 주전 자리에 바짝 다가섰고 라이언 럭스와 루이스 나니는 여전히 건재하다. 주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.

▲특별한 변화는 없다. 각자 재능이 있

는 선수들이며 잠재를 갖고 있다. 내 역할이 변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.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경기장에 나섰을 때 보여주면 된다.

- 복귀전에서 자신의 활약은 어느 정도였다고 보는가.

▲오랜만에 뛴 경기치고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한다.

- 현재 몸 상태는.

▲100% 완쾌했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.

▶연합뉴스

전남 PO행 좌절…성남에 0-1 패

전남 드래곤즈가 K-리그 쏘나타 챔피언십 2009 플레이오프와 2010 아시아축구연맹(AFC)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권 확보에 실패했다.

전남은 25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 일화와 K-리그 쏘나타 챔피언십 2009 준플레이오프에서 전반 23분 성남 물리나에게 헤딩 결승골을 내준 뒤 만회골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으나 끝내 득점하지 못하고 0-1로 패했다.

/김여울기자 wool@kwangju.co.kr

‘축구 대전’ R마드리드-바르샤 격돌

스페인 전역 영화관에서도 중계

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넘어 유럽축구 최고의 리그별전으로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간 주말 빅매치를 앞두고 스페인 전역이 뜨겁다.

‘엘 클라시코’(El Clasico·영어로 The Classic)로 불리는 두 팀간 맞대결은 30

일(이하 한국시간) 새벽 바르셀로나의 홈 구장 누캄프에서 열린다.

특히 이번 경기는 발목 부상으로 두 달 가까이 결장했던 레알 마드리드의 ‘특급 윙어’ 호날두가 복귀한 가운데 치러지는 경기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.

호날두는 26일 열린 2009-2010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FC취리히와 경기에서 후반 교체 출장해 건재함을 과시, 라이벌전을 기다리던 스페인 축구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.

AFP 통신은 미디어포토가 스페인 전역의 영화관에서 두 팀간 경기를 중계하기로 했다고 이날 전했다.

두 팀의 연고지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비롯해 20개 도시, 51개 극장에서 일반 영화관료를 내고 경기 중계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. ▶연합뉴스

‘신용대출’ 사업인 직장인 200만원부터 최대 5,000만원

한국씨티그룹캐피탈(주)

200만원부터
최대 5,000만원

대출 대상
직장인(또는 배우자), 자영업자, 프리랜서

대출금액
최저 200만원~최고 5,000만원

대출 기간
1년 ~ 최장 4년까지(6개월 단위)

대출금리
100만원당 1년 만기 상환 시 월 4천 500원부터

신용도를 관리해 드리는 채무통합서비스

타사에서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.

고객님께 더 나은 신용도를 열어드리는 채무통합 서비스!

취급수수료 면제 및 월 납입금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.

씨티파이낸셜 010-7167-3838

전화 상담 1588-3533



한국씨티그룹캐피탈(주)
대한민국 최초
무료 음성커뮤니티 탄생!
신축증인 최고금
무인텔 매매
대 지 : 736평
연건평 : 883평
객 실 : 32개
매매가 65억원
용 자 : 30억원
월매출 : 1억원
이상 보장
공동증개
환영 합니다.

가은공인증개사

☎ 371-4448 / 010-8289-8549

(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)

대 표·성 볼 규 (평원동동원로 16-7-29)

전 오전대회와 함께 대회 원정으로
전 조별리그와 결승전까지 출전한
(주) 한국증인부 대회장 이시

전 35-11-14구 한글라이브스포츠
도로 10-15로

한국증인부 대회장

한국증인부 대회장